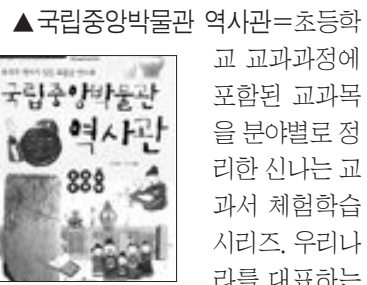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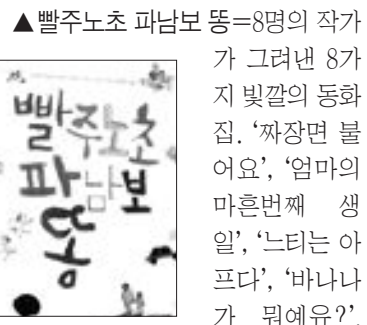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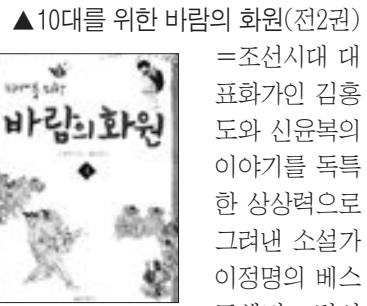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관=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분야별로 정리한 신나는 교과서 체험학습 시리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앙박물관 역사관에 전시된 유물들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스콜김영사·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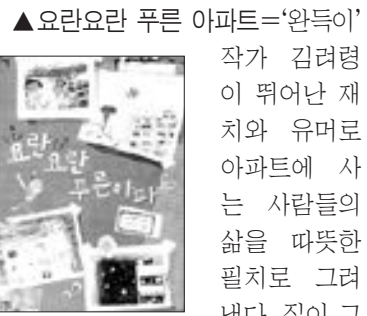
▲빨주노초 파남보 뚝=8명의 작가가 그려낸 8가지 빛깔의 동화집. '작가면 불어요',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노티는 아프다', '바나나가 뭐예요?'. '찐찐군과 두쌍둥', '샘물 세모궁' 등이 수록됐다.

(사계절 출판사·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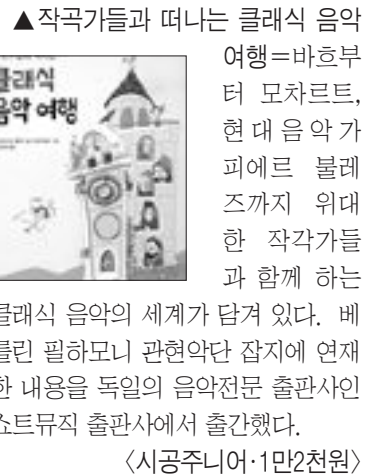
▲10대를 위한 바람의 화원(전2권)=조선시대 대표화가인 김홍도와 신윤복의 이야기를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소설가 이정명의 베스트셀러. 당시 생활상과 김홍도, 신윤복의 예술혼 등을 10대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밀리언 하우스·각권 9천원)



▲요란요란 푸른 아파트=완득이 작가 김려령이 뛰어난 재치와 유머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따뜻한 필치로 그려냈다. 집이 그저 건물이나 우리의 생각과 관계를 함께 나누는 가족 같은 존재임을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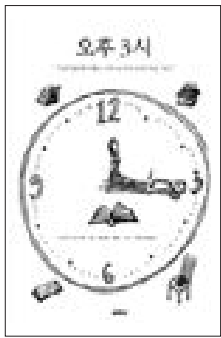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작곡가들과 떠나는 클래식 음악 여행=마흐부터 모차르트, 현대 음악까지 클래식 음악의 세계가 담겨 있다.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 잡지에 연재한 내용을 독일의 음악전문 출판사인 소트뮤직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시공주니어·1만2천원)

철학, 손끝 하나 안대고 세상을 정복한다



오후 3시 라파엘 앙토방 지음

"철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라며 '도발적 질문'을 해온 열정적인 젊은 철학 교수 라파엘 앙토방의 자전적 에세이 '오후3시'가 출간됐다.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비평가인 장 폴 앙토방의 아들이면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루니의 전 애인으로도 유명한 라파엘 앙토방의 저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현재 프랑스에서 철학과 현실을 접목시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첫 에세이를 통해 단순한 자신의 철학 이론과 사상을 딱딱하게 전달하기보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적인 문장으로 그만의 독특한 사유의 세계를 풀어내고 있다.

그는 논리를 전개하고 설명하고 논증하는 철학자 본연의 의무에 집착하기 보다는 일상인의 방식으로 자유로운 사고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신비로움으로 가득 쌓인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젊은 철학자는 바닷가에서 아이를 목말 태운 채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옛 여인을 회상한다. 그리고 세상의 기이함, 운우함, 혼란, 잔인함, 어리석음에 놀라워하며 때론 비굴함과 병축함, 원한과 분노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뚜렷한 시간의 연계적인 흐름도, 어떤 규칙이나 정해진 사유의 틀도 없음에도 이 책은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열어준다. 저자는 사소한 일상에 서부터 엄청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자연의 이치와 신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한편의 서사시처럼 능수능란하게 써내려가고 있다.

책은 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니체, 칸트, 사르트르, 장클레비시 등 선대 철학자와 그의 수많은 현대철학자들의 일화를 소개하고 그들의 은밀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독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철학에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철학은 선택이 아닌 신이 부여한 은총이다. 철학은 어떤 체계이거나 반 체계가 아니라 엄연한 생태계이다. 바로 거기에서 잔인한 약탈자와 무자비한 목동들과 잊혀진 장사치들이, 또 힘없는 희생자들과 기웃거리고 어슬렁대는 주변인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철학은 개념들의 전투장이거나 명령을 내리는 무기구가 아니라, 더욱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택하는 방법도 아니다."(111쪽)

이와 관련 저자는 "철학은 세상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철학은 바로 아이의 장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철학에 대한 '즐거운 주주'처럼 읽힌다.

오후 3시, 사르트르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언제나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말한 그 시간, 나른하고 감미로운 산책처럼 무겁지 않게 철학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단, 이 책을 읽고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얻으려라는 '오래된 습관'을 가진 독자들이라면 회담을 잠시 내려 뉘어 할 것. 그도 우리같이 습관처럼 총체적인 것을 두루뭉술하게 뒤섞어버리는 경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글을 쓴 철학자는 감정과 지식 사이의 균형을 결코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열림원·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장 폴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

기자의 청탁을 받고 '내 인생 한편의 책'에 소개하려고 집의 서가를 보니 닐 웨일즈의 '아리랑',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 같은 오래된 책이 손이 간다.

모두 80년대에 읽었던 책으로 영화 '바하사탕'의 설정구처럼 20대 청춘으로 돌아가고픈 욕망에 사로 잡히게 하는 제목들이 다.

미팅만 하면 애프터에 실패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키를 원망했던 기억, 망월 묘역에 참배하려고 들어가다 잠복중인 행사에 잡혀 닭장차에서 불매 맞았던 기억, 모두 이제의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여겨 잊혀진 선행하게 기억나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일까?

이런 기억과 맞물려 가장 인상에 남은 책은 장 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문인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 보브와르의 계약결혼을 한 낭만주의자, 나치가 조국을 침략했을 땐 펜 대신 총을 들었던 레지스탕스 대원, 베트남전쟁을

지식인들의 진정한 삶



반대한 평화운동가, 사르트르는 당시 우리의 아이콘이었다.

그가 쓴 '지식인을 위한 변명'을 나는 열창기 대학 신입생이면서도 지식인임을 자부하며 읽었다. 그뿐이랴! 전공 서적을 공부하는 것은 썩디 부르조아 속성을 떨치지 못한 반동 행위라고 치부하며, 학업에 열중하는 친구에게 모욕을 줄 때도 자주 인용하곤 했다.

먼지가 수북한 책을 펼치니 어느덧 대학 신입생 때인 1982년 겨울이 흑백 사진으로 인하여 현상된다. 그 해엔 몹시도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 대학 지하 소모임 일일이었다던 우리 학습을 위해 주말마다 월산동 산동네에 오셨다.

저녁 내내 선배 자취방에서 독서 토론을 하고 밤늦게 거리에 나오면 눈이 내리고 있을 때가 많았다. 우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까치고개를 질주하듯 내려왔다. 대성초등학교가 미끄러지듯 내려와 단골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쉬었다.

그 독서모임에선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는데, 얼음창고같은 단칸방에 빙 둘러 앉아 누런 패 인물을 덮고 달달 떨며 읽었다. 당시에 '지식인을 위한 변명'은 그래도 이해하기 쉬웠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페이지마다 밑줄이 그어진 것을 보니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가장 여러 번 풀을 그은 문장은 "지식인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을 지키는 '민중의 옹호자'로 남아야 한다."이다. 이 문장이 당시 내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아마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르트르의 삶에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 때 들어서도 사르트르처럼 참 지식인으로 살겠다고 밀줄 그으며 다짐했던 것 같은데 아득하기만 하다. 그 시절로 돌아가 나를 만날 수 있다면 '멋진 녀석'이라고 뽀뽀라도 해주면 좋겠다.

김영학(극단 허방 대표·극작가)



조선시대 회화·건축·조각 '한눈에'

무량수전... 최순우 지음

지금까지 50만부 넘게 팔린 최순우(1916~1984)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이하 무량수전)를 읽은 사람들은 책을 덮고 나면 한가지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유물들을 생생한 컬러 도판으로 만나고 싶다는.



(학고재·1만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말괄량이 삐삐' 작가의 여행 소설

'바다 건너...' 외 3권 리드 그린 지음

'내 이름은 삐삐 톱스타킹'으로 유명한 스웨덴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자전적 여행 소설 3권이 출간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린드그렌의 저작들은 대부분 동화였다. 이번 출간된 작품들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소설로는 국내 첫 소개작들이다.

'바다 건너 히치하이킹-미국에 간 카티', '베네치아의 연인-이탈리아에 간 카티', '아름다운 나의 사람들-프랑스에 간 카티'는 스톡홀름 출신의 20대 여성 카티가 여행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뉴욕, 시카고, 베네치아, 피렌체, 파리 등 자신이 직접 여행한 도시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 등을 통해 삶과 우정,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공사·각권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롭고 전문.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 목포점 개원. 12월 1일 개강예정.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국비무료. 수강료 60명. 061)277-8111. www.scukorea.com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 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인영남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광주고시학원. 227-8003. 971-0002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 행 교 세 관 법 검 철 출 교 보 보 복 소 기. 정 육 무 세 원 활 공 관 정 전 호 지 방 수. 30~40대 주부 특별반 모집.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11월 1일(주·아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3개월: 60만원 (교재 10만원 포함). 1개월: 30만원 (교재 5만원 포함). 무등고시학원. 222-4560. www.mdgosl.co.kr